

##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 체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겨울 계절학기(1.2~1.31)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을 다녀온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원 학생입니다.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으로 계절학기 파견을 준비하시거나, 파견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의 수업은 BEP, ESC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BEP는 비즈니스 영어 수업, ESC는 기본 영어 수업입니다. BEP는 파견 당시 처음 생긴 첫 기수였고, ESC는 27번째 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BEP에서 수업을 들었고, BEP는 토익 800점 이상이거나, 헬프 대학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BEP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BEP 수업은 충남대 국제교류본부 선발 학생들, 충남대 국제학부 학생들, 배재대, 경희대, 건국대 학생들 총 18명과 들었습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간단한 영어 발표 수업(비즈니스 영어)과 헬프 대학 Career sense 팀의 career development 수업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한 번 보았고, 영어로 이메일을 수기로 쓰고, 각 나라의 에티켓에 대해 영어로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일 일정은 아침 7시 35분 숙소에서 버스 탑승으로 시작됩니다. 수업은 8시30분~11시 30분 오전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3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오후 수업은 평일 5일 중 3일 정도 있습니다. 주말은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 이외의 일정인 날에는 헬프 대학에서 준비한 투어를 갑니다. 이외의 일정은 개인별로 계획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면 됩니다.

숙소 위치가 수도권 지하철과 매우 가까워 수도 곳곳을 여행하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숙소는 One stop residence hotel로 Chan sow lin 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달간 말레이시아에 머물면서 수도권 쿠알라룸푸르 뿐만아니라 싱가포르, 코타키나발루, 말라카, 랑카위, 페낭 등을 여행하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간 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께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 파견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헬프 대학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helpmalays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프 대학에서 프로그램의 기록을 꼼꼼히 사진과 함께 남겨두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프 대학 파견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이 누구나 가능하므로, 파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